

##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24: 로마서 2부

테드 힐드브랜트 [고든 칼리지]

#### 소개 [00:00-

이것은 신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테드 힐드브랜트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4입니다. 로마서 2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를 펼쳐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인류가 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도 죄가 있었고, 유대인도 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죄가 있는 파송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류의 죄성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원은 구원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는 실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정말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의화의 일들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 구속이 다시 사짐, 우리의 수치가 가려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그 분노가 달래져야 하는 화해. 그래서 그는 화해되어야 했고 그의 분노는 평화, 화해가 되어야

했습니다. 속죄는 깨끗해지기 위해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놀라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자녀에 대한 가공의 친족 용어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양한 개념으로.

오늘은 정말 까다로운 몇 가지 문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도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본 다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농담). 오늘은 꽤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견해 .--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더 내려가야 합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견해는 옛날 관점에 따르면 로마서와 바울의 율법과 은혜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대조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긴장, 율법과 믿음의 긴장, 육체와

영, 유대인들은 할례와 개인적 구원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초점은 장기적으로 개인적 구원에 맞춰졌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개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오래된 관점, 바울의 오래된 관점과 같은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새로운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제임스 던과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이런 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포함과 배제이며, 이것들은 배타적인 민족적 표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표식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바울이 할례, 율법, 코셔를 먹는 것과 같은 민족적 표식을 초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런 민족적 표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더 보편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 될 수 있는 반면 유대교 유대교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룹에 포함되려면 그들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그룹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방인과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 구원보다 여러 면에서 로마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래된 방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르쳐지고 개인적 구원, 개인적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원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내용 중 일부도 좋아하는데,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하고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모으려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12에서 그의 가르침의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난하거나 율법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구절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무도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죄를 교묘히 피해다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많이 논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면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든 필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양심을 폭로하고, 깨우치고, 우리의 의식을 살아나게 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진짜 죄인이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야. 바울은 “아니,

율법은 우리를 죄의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이걸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정말 반문화적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취했고,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기능을 전복하여 그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취해 그들이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도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방식대로 하면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틀린 길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승인되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작은 법률 시스템을 사용하고, 거기에 매우 엄격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용합니다. 윌슨 박사의 책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로마서의 많은 부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오기 전에 그는 할례의 민족적 표식과 동일시되었고, 할례 전과 율법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500년 이상 후에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 전과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고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통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아담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 사이에는 정말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있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5장에서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죄의 보편성에서 율법은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오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 삶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율법을 보는 관점의 일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특히 로마서 7장에서 전개하는 성화의 개념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성화, 성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여하고, 의로움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성화는 사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레위기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화는 이 거룩함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웨슬리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웨슬리안 교회, 웨슬리와

교회는 거룩함 운동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죄와 함께 일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화와 함께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막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삶과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선을 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을 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몸의 지체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서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화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 너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의 이 구절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들은 이 구절과 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성화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를 피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 그의 삶에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그의 영혼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겪었던 투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젊은 신자의 투쟁이라고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신자의

투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들은 삶 속에 죄의 짐을 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까지 그것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이 있고, 그들은 씨름하고 성숙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죄와의 씨름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관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의 씨름을 묘사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육신 안에서의 씨름과 영 안에서의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시기에 세 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단순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투쟁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의 죄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죄조차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짐에 따라 자신의 죄악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워치맨 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의 현재 투쟁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과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저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성화의 투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 합니다. 수업에서 수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투쟁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저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학 수업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것들로 빠져듭니다. 글썄요,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레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저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다' 로 돌아갑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실제로 투쟁이 심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면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우리는 예전에는 없었던 모든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투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투쟁은 실제로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수록 투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힘겹게 싸우셨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힘겨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밝힌 바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겨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 힘겨움은 바뀌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힘겨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힘겨워했던 일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붙잡았다가 갑자기 10년 후에 여기 10년 전에 힘겨워했던 것과 같은 일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면을 벗고 보니 아니요, 사실 10년 전에 다루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신이 가능한 한 일찍 그 핵심 문제들에 대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당신의 존재 속의 진짜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가면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투쟁입니다. 이게 성화 교리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과 씨름합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씨름하는데 때로는 성공적으로,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5은 아름다운 구절인데,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많은 싸움이 생각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으로, 우리는 예정과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 입니다. 이제,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정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이제 선거, 저는 선거를 믿습니다. 뉴욕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뉴욕에서

온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네, 선거를 믿나요? 사실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고  
 생각해요. 투표했나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뉴욕에서 버니와 힐러리, 도널드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떠올립니다.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른 가족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아시죠,  
 패트리어츠 브래디가 정말 공의 공기를 빼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농구를 알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한때 볼스를 봤어요. 그들은 야구를 해요.  
 물론 보스턴에서 양말을 신어야죠. 우리 가족은 대부분 가족이 축구를  
 하듯이 정치를 해요. 우리 가족은 그것에 꽤 빠져 있어요. 우리는 큰 논쟁을  
 벌 이지만 지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정말 웃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했고 학생들은 완전히 알아챘어요. 그들은 제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농담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심했어. 선거. 선거란 뭐지? 좋아.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28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심을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위하여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느니라.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는 직접 부르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그가 미리 알고, 예정하고, 부르고, 의롭게 하신 것에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가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관념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8:28이 선거의 이 관념에서 주로 인용됩니다. 저는 에베소서 1:4에서 다른 구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은 선거 또는 예정의 교리에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4는 “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이미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여 " 그의 눈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쁨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로 적합하게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입양을 받았지만, 그 입양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종류의 예정/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11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는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러나 로마서 9:11,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행위로 서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야곱아, 내가 에서를 사랑하였느냐,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느냐" --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5를 사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을 때에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을 때에 너를 알았노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나는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임명했다.

“ 예레미야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따로 세웠다 예레미야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글쎄, 신이시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나는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은 “아니,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예정했다. 그러므로 선거는 신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청교도 중 한 사람이 공포에 떨었는데,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을까? 신이 나를 선택했을까? 신이 나를 신에게 예정했을까? 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기회가 없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미운 사람이 힐데브란트라면 어떨까?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글쎄,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미워했다. 당신은 “그럼 나한테는 기회가 없겠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종류의 공포는 내가 선택받았을까? 나는 선택받은 자의 일부일까? 나는 선택받은 자의 일부일까?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공포가 찾아온다. 내 인생에서 때때로 그런 것을 느낀 것 같다. 그러면 인간의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신성한 선택과 어떻게 맞아떨어질까? 그것이 인간의 선택과 어떻게 맞아떨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중 일부는 내 구약 성경 수업에 참석한 적이 있다.

힐더브란트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 정말 강조했어.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신성한 선택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아담은 선택을 하고, 이브는 선택을 하고, 카인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히려, 꽤 복잡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게 바로 그 소음이다. 프로젝터다. 아마 꺼야 할 것 같다. 이 주제로 이 강의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일부는 사실 이런 전통 중 일부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 중 여러 개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든 칼리지와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해 큰 의견 불일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이 제 태도를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저의 인지적 내용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성한 선택과 예정을 인간의 선택과 함께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해야 할 거예요 .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글썄요, 제가 가장 먼저 부르고 싶은 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이건 존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경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신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관점은 제가 극단적인 개혁적 입장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개혁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부분을 강조합니다. 개혁 전통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점, 개혁 전통에 대해 제가 사랑하는 점은 그들이 신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신의 주권은 신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신이 왕이라는 것, 신의 주권은 신이 왕이라는 것, 신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신과 사탄의 대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신과 사탄의 대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은 전체입니다. 신과 사탄의 대결이 아닙니다. 한 분의 신이 계시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의 왕권입니다. 그게, 여기서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신성함, 이것이 극단적인 관점 이기 때문에 ,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정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의 결정론이라고 부를 때, 신이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거의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죄인이고 신이 저를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혁 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문제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인간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선택이 차례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은 실제로 인간을 매우 상호 작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모세가 신에게 기도하자 신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오, 신이시여, 제발 그들을 없애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없애면, 그것은 당신과 그 둘 다에게 나쁠 것이고, 그는 그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떠나고, 신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후에 신은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요청한 대로 그들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실제로 인간이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네가 모세에게 요청한 대로 그들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극단적인 입장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운 좋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운 좋은"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귀찮게 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이프에 담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들을 운 좋은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연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성 칼빈주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게 뭔데요? 이 사람들은 더 합리적이고 범주를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책을 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J. I. 패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쓴 훌륭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러한 용어를 소개하고 이러한 용어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순어, 모순어가 뭐야? 내가 현명한 바보, 현명한 바보라고 말하면 모순어야. 옥시, 멍청이가 뭐야? 멍청이가 뭐야?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말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멍청이는 바보를 뜻해. 옥시는 마찬가지로 현명한 것을 뜻해. 그러니까 모순어는 현명한 바보를 뜻해 그런데, 그 용어들은 충돌해. 모순어. 그러니까 무언가는 사실 멍청한 거야. 뜨겁고 차갑거나 그런 거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걸 모순어라고 해.

이런 유연성 칼빈주의자들은, 아마 제가 더 나은 표현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아마 차분한 칼빈주의자라고 부르죠. 정말 강인한 사람들은 결정론적입니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대부분은 제가 부드러운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합니다. 아니면 하나는 큰 R로 개혁되었고,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작은 r로 개혁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큰 R로 개혁되었고 작은 r로 개혁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 두 번째 범주, 즉 모순의 범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여기 두 번째 용어를 보시나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둘 다 믿지만, 그것들을 함께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든 함께 작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JI

패커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 즉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선출하고 예정 하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함께 맞추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믿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제가 이 관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비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모순적 접근 방식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역설은 모순과 다릅니다. 모순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설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설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차가 나무에 부딪히고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차가 나무에 부딪힙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소년은 응급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외과의는 이 소년을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 아들입니다. 그것이 역설입니다. 이제,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역설은 당신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역설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당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퍼즐과 같습니다. 역설 퍼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러들여, 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알다시피, 하지만 당신은 방금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고로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데려가세요. 아들을 수술할 수 없어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의 어머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당신들은 나보다 똑똑하시네요. . . 사실 저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는 제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버지라는 것에 갇혀서 그게 역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계부라고 생각했어요. 계부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했어요. 어머니라는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멍청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해요. 씨름하려고 하는 당신을 부르는 것이 역설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JJ 패커가 하는 일, 주권과 신의 뜻에서 좋아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르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이끌고 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성 또는 행운의 칼빈주의자들입니다. 행운의

칼빈주의자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정말 화를 낼

것입니다. 사실, 아마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칼빈주의의

기본을 살펴보고, 일종의 개혁된, 예전에 있었던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개혁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글썄요, 그러면 그들은

저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여기

기본적으로 TULIP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입니다. 이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TULIP은 입문

수준의 칼빈주의예요.

그들은 먼저 칼빈주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핵심까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삶의 악행에 빠지고 미덕을 놓칩니다. S 기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고약하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 하지만 전적 타락을 살펴보면, 제가 자라면서 알아차린 것은 사람들이 전적 타락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은, 이 밀레니얼 세대 학생들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밖을 바라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의 관점에서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부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건가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로 선택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처리해야 하고, "이봐, 당신 생각 중 일부는. 이걸 해야 해.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옳지 않아. 뭔가를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전적인 타락이 핵심입니다. 저는 타락이라는 단어는 좋아 하지만, "전적인" 타락이라는 단어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일했다고 말했잖아. 인디애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주 기록을 보유한 녀석이야. 그는 미국에서 가장 수배된 10명 중 한 명이었지 .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테이프는 조심해야겠어. 어쨌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그는 실제로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탈출했어. 테이프에 있으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냥 찰리라고 부르겠어. 찰리는 내 절친이야. 그는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11번이나 선고 받았어. 그들은 그를 찰리 씨라고 부르지. 지금 그들이 당신을 교도소에서 씨라고 부르면, 그게 최고 보안 교도소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들은 아무도 씨라고 부르지 않아. 그들은 그를 씨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야. 모두가 그 녀석을 알아. 그는 꽤 명성이 있어. 그는 내 개인적인 친구야. 이제, 찰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에게 선함이 있을까? 그에게 선함이 있을까? 당신은 그가 그 모든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하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그에게 여전히 선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말하고 이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사람이 여러 살인범이고 이 사람이 끔찍한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뉴욕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매우 성공적이어서 시장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를 기리고 연단에 세웠고 늙은 찰리는 연단에 있었습니다. 뉴스 매체가 와서 사진을

보여주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숙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를 연단에 세웠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로 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음의 선함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진지하게 말해서 마음의 선함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완전히 사악한 사람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정말, 정말, 정말 나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정말 좋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데브란트는 "전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우리는 타락했지만 "전적"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TULIP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글쎄, 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다. 나는 야곱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야곱, 야곱을 기억하니? 에서를 기억하니? 진실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품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니? 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등등.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하신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분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선함을 보신다. 아니, 아니. 무조건적 선택이다. 예정은 오직 신성한 선택에 근거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분은 그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은 그저 그를 선택하셨을 뿐이다. 그분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선거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조건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 더, 사실, 다음

것들을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속죄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에 대한 제 문제는, 속죄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대속적 속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아름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악이 도살당하기 전의 어린 양처럼 그에게 지워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대속적 속죄 개념과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좋아하지만, 제한된 속죄 라고

말하는 것은 ... 저는 "제한된"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기에 "그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속죄를 제한된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속죄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제한된"이라는 단어를 없애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레이스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인디애나 위노나 레이크에 있는 그레이스 칼리지를 떠났을 때, 그 학교를 떠났을 때, 그레이스를 떠나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를 떠났고, 그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때, 제가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항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왜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을 넣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신이시여, 당신이 저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군요, 신이시여, 저는 그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알다시피, 당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당신과 싸울 자격이 있나요? 신이시여,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직면하지만, 저는 은혜가 항상 저항할 수 없는 것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은혜라는 개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은혜를 행하는 것을 듣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은혜를 행하는 가장 좋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제 동생인 한 남자를 녹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덴 다코 박사입니다. 그의 The Prison Epistles 강의에서 그는 제가 인생에서 들어본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냥, 제 말은, 제가 문자 그대로, 저는 그 사람을 녹음하고 있었고, 그가 에베소서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묘사했기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Darko의 감옥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이제, 저는 성도의 인내라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영원한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성도의 인내? 저는 성도의 인내라는 문구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인내할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안전보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영원한 안전은
 일종의 사회 보장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또한 안전입니다. 정말 견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당신의 급여에서 큰 덩어리를 삭감할 때, 예를 들어, 늙은
 힐드브란트는 당신이 그것의 한 푼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정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보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저를 앓히고 영원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인내할 것이라는 성도들의 인내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더 설명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다가, 예수께서
 유다를 보내어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는 12명을 보냅니다.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군가는
 지혜를 원한다고 말하고,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생애 말기에 이교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아내들을 위해 성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은 생애 말기에.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나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이봐,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기한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락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발람의 민수기 22-24장을 기억하나요? 발람 은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만 좀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 가족 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돌아선 사람이 있나요? 답은 ' 그렇다, 그렇다' 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진정한 성인이 인내하는 성도의 인내. 그런데, 그게 직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서 인내하나요?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TULIP이라고 하고, 이것이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기본

요점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한 일을 보셨나요? 저는 “전체”를  
 취했고, 무조건적인 것, 제한된 것,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취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개념, 성도의 인내를 좋아합니다.  
 저는 거기에 인내가 있다고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 질문이며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빈주의의 5가지 요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요점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개념들을 다루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합시다.  
 많은 경우 TULIP과 같은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는 훌륭한 진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 구성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구성은 논리적 형태와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구성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성경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논리적  
 구성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제 문제는 제가 논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본문에 낮게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론할 수 있고 저것을 추론할 수 있고, 성경 위에 이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완전히 타락했고, 이런 종류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 자신의 뇌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제 수업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우리를 땅에 딛고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런 것들은 칼빈주의적입니다. 개혁의 반대 개념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입니다. 제가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장로교회일 것입니다. 개혁은 칼빈에서 푸이타니즘 으로 나왔습니다 .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 많은 작업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반면에 개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예지를 살펴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살펴보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의 예지에 근거하여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은 사물의 더 인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선행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인간적 선택과 그런 종류의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일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개방성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ETS(복음주의 신학 협회) 회의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과잉 반응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화를 내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존 샌더스와 다른 사람들이요. 저는 이것 중 일부에 대한 과잉 반응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방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미래는 열려 있고 우리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을 위해 특별한 일을 택하십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제가 어떻게 상호 미래가 있다고 제안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 미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자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미가 5:2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로 집에 갈 거야.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로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을 고치실 수 있지만, 다른 일들은 미결로 남겨두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미래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A, B, C, D, E, F, G를 단 하나의 미래 선으로 알지 못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미래를 가능성으로 알기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케일라 성으로 달려가는 장면과 같은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3:13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그는 말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나에게 순종했다면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이스라엘 위에 두었을 것이다. 네가 왕이 되었을 것이고, 네 자손 사울아, 네가 나에게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이런 if/then 진술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는 끝났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을 것이다, 다윗.

그래서 이 개방성 운동 자체에서 존 샌더스는 신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런데, 성경에 문제가 있나요? 신이 미래를 아시나요? 네, 아십니다. 그래서 개방성 사람들에 대해 제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여러 미래가 있고, 그러면 가능성에 대한 개방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거부. 그리고 이것은 이것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방식으로, 제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신이 미래를 가능성으로 알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십억 개의 가능성이 있고 신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래에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 중 일부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는 올리브 산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올리브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올리브 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그가 돌아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백만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가능성으로 미래를 알기로 선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능성으로 알기로 선택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형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 개혁된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혁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당화하시고,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물러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린 박사는 다른 식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린 박사에게 공간을 줘야 합니다. 저는 존 파이퍼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줘야 합니다. 그가 저에게 공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독단적이 되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말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공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다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당신의 룸메이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답은 예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하루하루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결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그저 .....

그럼 여기서 이 문제로 돌아가죠. 책에 움직임이 있는데... 네, 등록 시트는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사실 벤, 당신이 거기에 있는 동안 이것들을 돌려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그는 비디오를 찍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니다. 사실, 아마 그에게 수업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벤. 로마서의 첫 부분에는 이방인이 죄인 이고 , 유대인이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기본적으로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과정에 개입하심을 보여주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보여 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넘어가면, 이것이 움직이는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의 머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의 모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큰 대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는 곳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끝은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사적 질문이 맞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조연자였는가, 누가 하나님께 드러서 하나님이 갚아야 할 것을 드렸는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세상이 우리에게 관한 것인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관한 것인가? 세상이 나에게 관한 것인가? 물론입니다. 전부 나에게 대한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세상, 우주는 신에 대한 것이고, 그게 변화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거기서 끝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은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모든 권고들과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기는 몇 가지 어려움  
 ,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선거를 다시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대결로 봅니다. 그가 9장부터 11  
 장까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P 샌더스와 다른 사람들이  
 로마서가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고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샌더스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 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보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면, 당신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당신은 악에 대해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면, 당신은 악에 대해 어떻게 하시나요? 신이 악을 만드셨나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이 그의 권고에 따라 작동한다면, 당신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과 의로움. 의롭고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제 사무실에 학생이 한 명 왔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신 자신은 어떨까요? 신 자신이 고통을 겪으시나요? 그는 고통의 세상을 만드십니다. 신 자신이 고통을 겪으시나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를 슬프게 했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웃으신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기억하는 구절은 예수님이 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신 분입니다 .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나갑니다. 하나님, 거절에 대한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플까요? 존재의 핵심까지 아플까요?

저는 한 젊은이가 결혼한 여성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는 "사랑해. 상담을 받을게. 뭐든지 할게.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할게.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우리는 6년째 결혼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내장을 찢어발기고, 내장을 찢어발기고 말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아프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의 사랑이 엄청나고, 엄청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신은 수천 년 동안 그런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최고와 같은 사랑인데, 우리는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희생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희생하셨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랑이나 정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자기 희생 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이 선한 신이면서도 악으로 창조된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의 문제는 기도가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 곳을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의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고 말할 때,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강력하고,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작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론과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실 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땅에 인류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답은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선택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언급한 if 구절들. 다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선택의 이야기에는 아담과 이브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오게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널리 퍼져 나가는 듯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체계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학적 체계에 대해 조심해야 하며, 여러분이 개혁 진영에 있든, 아르미니우스 진영에 있든, 개방 진영에 있든, 어떤 진영에 있든 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우고 개혁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통에 속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더 웨슬리안적 입장에 있고, 장로교인이라면, 웨슬리안에게 가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저처럼 개혁될 거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오만한 입장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신비와 경이로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별새가 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호스타라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별새가 와서 꽃 위로 올라가고, 당신은 그저 거기 앉아서 와, 정말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이 매혹적이라는 신비와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에 매료되는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를 신학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런 존재이고, 이것이 신이신 분의 모습이며, 우리는 그를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신비와 경이로움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을 잡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초월성과 임박성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단지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일 뿐입니다 . 초월은 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신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는 우주보다 더 큼니다. 제 말은, 그는 우주를 창조했고,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만들었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의 초월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온 우주와 우리의 뇌를 초월합니다. 임박한 임박은 신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호흡만큼 가깝고, 신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신의 존재를 경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신이 초월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바다만큼 위대하고 산만큼 큼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념, 거룩한 다른 존재이지만, 그는 관계적입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신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말, 제 자녀 중 한 명,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딸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옥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그것은 그녀였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그냥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한계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냥 폭발하고, 아시다시피, 붐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늙은 여성입니다 . 그녀는 30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딸입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지만, 그녀와 우리는 돌아왔고, 우리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은 관계적이고,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나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르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보수적인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한 친구가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그는 훌륭하고 확고한 신자였고,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신학 교육,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혼을 했고, 이혼으로 아내가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얻었고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는 그냥 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젠장, 젠장,"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젠장, 젠장" 하고 말했습니다. 30분 동안 30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가 신을 버렸다는 뜻인가요? 그 시점에서 그의 삶에서? 네, 저는 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제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건 그 애뿐이었고, 이제 아내가 그 애를 가졌어. 아주 제한적인 조건으로만 볼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그는 신에게 완전히 화가 났어.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분노를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10

몇 년 후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릴 때,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뭐라고요? 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은 그 울음과 함께 울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나요? “당신이 기뻐하면 백 명이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 혼자 울고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겠어요? 당신이 울고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온갖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관계적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처럼요. 신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신은 기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신은 기쁠 때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우울하고 침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침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꾸준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입니다. 때로는 100만 달러와 같습니다 . 다른 때는 정말 침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묘사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상자를 깨는 것에 대해 이단 사냥에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너무 엄격해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쫓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단 사냥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런데 사랑은 제 딸이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그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그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단 사냥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저는 기본적으로 오만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오만함의 입장에서 겸손함의 위치로 일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고 정말 좋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입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결국 누가 이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국 승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말씀이 있나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시간의 끝에 그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닦아야 할 눈물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에릭 클랩튼이 옳았습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요, 진지하게 말해서 하늘에는 눈물이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선택을 가져다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서 잠깐 이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자기 희생은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기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이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라.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것이 고든 칼리지에서 일어나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  
 장 9절은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에 집착하라”  
 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한 것에 집착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 악한 것들을 내놓고 그들이 악과 싸우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선에 집착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비판한다면, 우리는 선에 집착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악에 대한 증오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증오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한 증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 친절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악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당신은 악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것은 “악에 이기지 말라.  
 악에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악과 싸우나요? 당신은 선을 행함으로써 악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악, 나가서 악과 싸우거나 나가서 선을 행하고 선이 악을 이기게 할까요? 그래서 그것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중요한 구절이고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선택에 대한 이 구절을 여기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정부에 대한 구절은 1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통치권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는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그릇된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정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권위를 좋아합니까? 여기에서 통치자들은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든지 경찰차에 쫓기고 공포감을 느끼면, 경찰이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가 그레이프바인 로드를 달리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나에게 티켓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통치권자가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정부에 복종했을까요? 정부가 초기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 중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사도, 유다를 제외한 12사도 모두 스스로 목을 매달았지만, 사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 복종하세요.

14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쉬. 사람들이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봐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그는 당신이 이 약한 형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내 형제 자매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내 형제 자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한 형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자유의 구절과 약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념합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방법에 정말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안식일을 매우 지키는 교수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와 제 아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결국 공인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요일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녀의 사업 방식일 뿐입니다. 제 딸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병원에서 일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아프지 마세요." 제 딸은, 만약 당신이 간호사라면 일요일에 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요일에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돌아오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신약에 대한  
강의를 하는 테드 힐드브랜드 박사입니다. 세션 번호 24입니다. 로마서 2부..